

# 정부기관소식

## »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구성, 제1차 전체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참여소통의 장으로 생산자·소비자·학계·언론·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22일(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계 원로인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농업인식품업계소비자 대표, 학계, 언론, 지자체, 일반국민 등 16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이번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는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이장, 출판사 대표, 대학 교수, 홍보전문가, 현장 농업인 등 16명의 일반국민위원이 참여하였고, '80년 10월부터 '02년 12월까지 22년 동안 국민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희장 역할을 맡았던 최불암씨가 국민공감 농정위원회의 홍보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①행복 농촌, ②희망 농업, ③신뢰받는 식품소비자, ④국민사랑 축산, ⑤스마트 농정, ⑥특별분과)로 나누어져 운영되며, 분과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관계자 25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6월말까지 국정과제 등과 연계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새정부의 농정 비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한 5대 농정과제(①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②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건설, ③농가 소득 증대, ④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⑤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를 구체화하고,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국민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주요정책과제도 함께 다뤘다.

또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대기업 농업 참여, 직불제 개편 등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농정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로 선정하였고, 분과위원회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월 2~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과위 회의 중 1~2회 정도는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논의 일정내용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정책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실효성과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7월 이후에는 매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농업 참여,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과 같이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농정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농정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농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발령

### 차관보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준원

성명 : 이 준 원(李濬遠)

생년월일 : '62. 11. 25 (51세)

출생지 : 충남 아산

주소 :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9-10 나노빌 103호

학력 :

- '81. 2 : 천안고등학교 졸
- '85. 2 :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졸
- '90. 8 : 서울대 행정학 석사 졸
- '96. 5 : 워싱턴 주립대 농업경제학 석사 졸

경력 :

- '87. 8 : 임용(행시 28회)
- '88. 8~'00. 7 : 경제기획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유통정책과, 법무담당관실, 투자심사담당관실
- '00. 8~'00. 7 : 투자심사담당관, FAO 파견, 행정법무담당관, 장관비서관, 유통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 '00. 8~'13. 4 : 재정기획관, 주 제네바 참사관, 녹색성장정책관, 농촌정책국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희종 (신규채용)

성명 : 최 희 종(崔喜淙)

생년월일 : '59. 9. 29 (54세)

출생지 : 광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샘마을아파트  
102-1802호

학력 :

- '77. 2 : 광주제일고 졸
- '81. 8 : 전남대 농과대학 농학과 졸
- '90. 7 : 프랑스 몽펠리에농업대 농업경제학 석사 졸

경력

- '81. 4 : 임용(행시 24회)
- '85. 8~'96. 1 :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장과, 농정기획과
- '96. 2~'04. 6 : 가공산업과장, 유통관리과장, 무역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유통정책과장
- '04. 7~'10. 7 : 농촌진흥청 기획관리관, 정책홍보관리관, 농업경영정보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장, 소비안전정책관
- '10. 8~'12. 7 : 새누리당 농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부처 칸막이 없애다

중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H7N9型) 감염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됨에 따라, AI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두 정부기관이 협업에 나섰다. 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이다. AI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력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람은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4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본부장 박용호) 질

## » 정부기관소식

병관리본부장(본부장 전병율)을 1일 검역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에 앞장섰다.

전병율 본부장은 하루 동안 검역본부장이 되어 동물의 AI 질병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인천공항 국경 검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두 본부장은 AI 방지를 위해 검역본부의 축산관계자 등 사람에 대한 소독 조치가 “칸막이 없는 부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라면서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AI, Rabies 등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청정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농촌진흥청

### 새로운 축산기술 농가에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14종 121개소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축산분야 시험연구결과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축산농가에 신속하게 확산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이뤄 졌다.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MSY 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 등이다.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 모돈(어미돼지) 한 마리당 1년간 생산된 돼지 중 출하체중(=판매체중, market weight)이 될 때까지 생존해 판매된 마리수)

축산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기술요소 반영도와 실용성이 높지만 새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때 위험(Risk)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해 작목

반과 영농법인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지원만 하는 사업보다 기술투입 중심의 사업으로 내실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황규석 기술지원과장은 “기술보급 시범사업 내용을 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에 보급하는 기술들에 대한 현장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나온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기술 개발 등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수요를 반영하고 새기술 시범사업 과제발굴을 위한 신규 과제 공모를 계획하고 있어 많은 지방농촌지도기관과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 » 국립축산과학원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와 축산현장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지난 4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축산 기술과 경제사업 부분의 융복합 및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히 변화하는 축산환경과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해 서로의 장점을 융복합해 축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체결하게 됐다.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중앙회는 우선적으로 축산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재무 설계 등 컨설팅분야 추가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의 전문컨설턴트를 서로 지원하는 한편, 개발한 새 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을 위해 축산관련 기술서적과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전국단위 유통망을 활용,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도매시장 유통개선 등 축산물의 유통합리화로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세계 종자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주요 가축 개량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황규석 기술지원과장은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서로 윈-윈 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농협중앙회의 전국단위 조직력을 활용해 개발한 새 기술의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직원 청렴실천을 위한 다짐대회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4월 9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 직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하여 '청렴서약'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서약'은 처장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식약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이 자신의 청렴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청렴서약'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기반의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모든 직원들은 부패·비위행위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통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식약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 HACCP 컨설턴트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4월 18일 (목) 대구무역회관 중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서 「HACCP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북지역 HACCP 컨설팅업체 16개 업체 19명이 참석하였으며, HACCP 지정시 주요 지적사항, 심사후 보완서류 제출 안내, 2013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컨설팅업체의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준원은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HACCP 「Farm to Table」 완성에 있어 컨설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컨설팅업체가 HACCP 지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영남지역 컨설턴트 간담회를 통하여 HACCP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준원에서는 HACCP 적용, 운영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컨설팅업체에서 추진과정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 정부기관소식

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로 컨설팅 업체가 축산물 HACCP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컨설팅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HACCP 전용망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국가별 수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조직 결성 aT Global Club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4월 17일(수) aT센터 3층에서 aT Global Club 발대식을 개최했다. aT Global Club은 일본, 미국, 중국, 구주, 아세안 5개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 지역 연구회이다.

aT는 전 세계 한국식품의 수출을 이끄는 국내유일의 식품수출 전문 공기업이다. aT 식품수출본부 전 직원은 1인 1클럽 가입을 통해 전 세계 지역연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기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10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해외aT센터 파견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현지 수출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수출전략을 도출하여 실제 수출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각 클럽은 FTA 등 국가별 이슈 연구, 수출동향 파악, 현지 정보 수집, 신규 수출품목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며, 더불어 각국의 문화를 탐구하며 농식품 산업을 보는 창의적인 안목을 기를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해당 지역 전문가를 초청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前 오스트리아 공사를 역임한 국회의정연수원 백환기 교수의 초청강연 ‘보성녹

차, 비엔나에서 길을 묻다’와 로테르담 aT센터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aT 문영호 과장의 유럽진출 사례 발표 ‘EU, 이유 있는 도전’이 진행되었다.

김재수 aT 사장은 “품목위주로 구성된 aT 식품수출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T Global Club을 결성하여 참신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도출하고 수출업체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 농협중앙회

### 농협, 한마음으로 농촌일손돕기 나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4월 26일(금)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경제지주 및 관련 계열사업

직원 80여명과 함께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농협중앙회 본부 직원들과 금융지주 직원들은 각각 경기도 안성과 충남 아산에 소재한 농장을 찾아 1년 중 4~5일 동안만 작업이 가능한 배꽃화접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은 매년 농번기와 재해발생시 지속적인 임직원 일손돕기를 실시해왔다. 특히 금번 농촌일손돕기는 사업분리 이후 전 계통조직이 하나 되어 농업인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범농협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김진국 농촌지원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도움을 드리는 농업인 행복시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